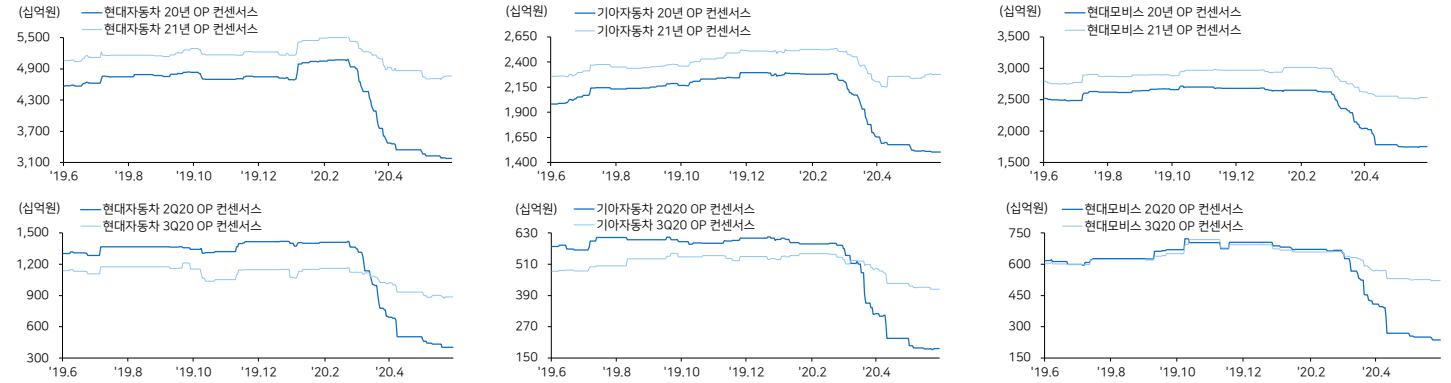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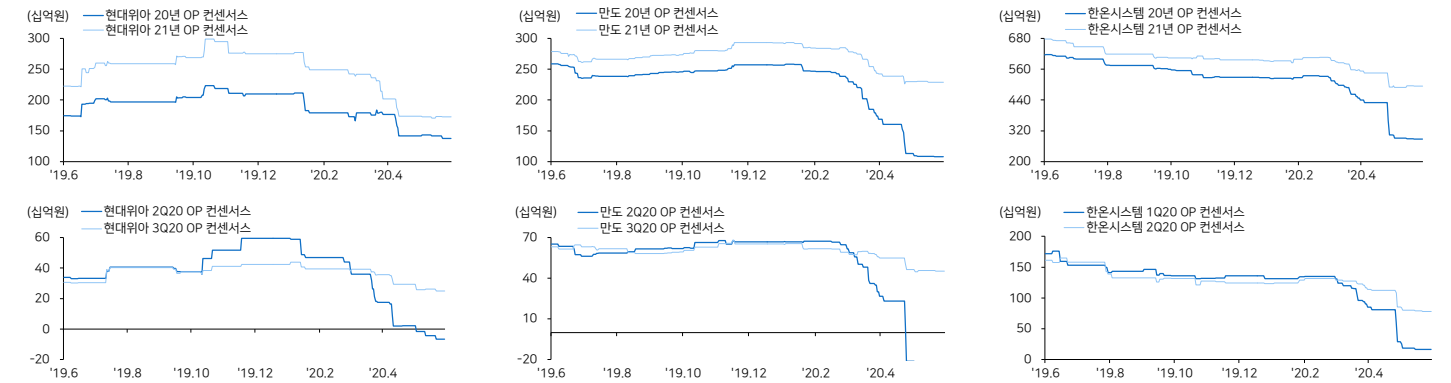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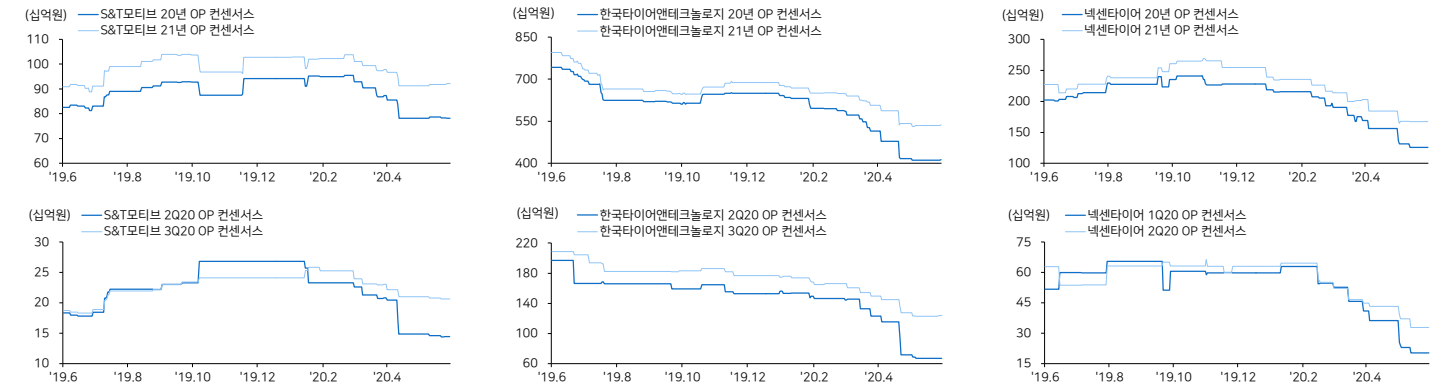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 · 기아차, 하반기 신차 잔차...쌍용 · 르노 · 한국GM 어찌나 (중앙일보)

현대 · 기아자동차가 하반기 신차를 쏟아낼 SUV 센터를 시작으로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GV70, 기아차 카니발 등 소비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델들을 선보여 양반 지배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이 엿보임.
<https://bit.ly/3fxoNGU>

현대차 2차 협력사 사업포기...캘리세이드 생산도 중단되나 (서울경제)

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사업 포기를 결정. 이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 현대차 울산공장의 일부 라인에 또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<https://bit.ly/2N8m8XW>

현대 · 기아차 5월 유럽 판매량 54% ↓ (서울경제)

현대 · 기아차가 지난달 유럽에서 54% 줄어든 판매량을 기록. 유럽 시장 전체 규모가 57% 크고르던 여파를 피하지 못했음. 현대 · 기아차는 지난달 유럽 판매량이 4만2,479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54.3% 줄었다고 밝힘.
<https://bit.ly/3dckKkq>

5월 수출 28% 넘게 '뚝'...자동차 64% 급감 (KBS뉴스)

지난달 일본 수출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30% 가까이 급감.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64.1%, 57.6% 급감.
<https://bit.ly/3d86xct>

현대차 '베트남 국민차' 질주...2분기 연속 도요타 제칠 듯 (한국경제)

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나 다름없던 도요타의 독주가 위협받고 있음. 현대자동차의 질주가 원인. 현대차는 올 1분기에 1만5362대를 판매해 도요타를 제침. 2011년 단공과 합작해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처음.
<https://bit.ly/3ecFGq8>

현대차, 국내 최대 '드라이빙센터' 짓는다 (전자신문)

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체험형 '드라이빙 센터'를 지을. 현대자동차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중남 태안군 태안기업도시에 건설 중인 첨단 주행시험장 내에 현대자동차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건립.
<https://bit.ly/37KGqAj>

'성장가도' 막는 코로나19...현대모비스, 언택트로 '탄탄대로' 연다 (매일경제)

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부품 국내의 판매 시장이 위축되고 대면 마케팅을 펼칠 수 없게 됐음.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로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. 다양한 비대면(언택트)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짐.
<https://bit.ly/2ZkSiss>

폭스바겐,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...전기차 안전성 ↑ (블로터)

폭스바겐이 전고체 전지(Solid-state Battery) 관련 업체에 투자하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 나선. 6월 16일(현지시간) <테크크런치>는 폭스바겐이 퀀텀스케이프(QuantumScape)에 2억달러(2424억원)를 투자했다고 보도.
<https://bit.ly/3hzvOJ4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